우리민족끼리

통일화보

주체112(2023)년
(5 — 6월)
3호

특집 후대들의 행복,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 진행

통일화보

주체112(2023)년 3호 (5－6월)

특 집

후대들의 행복,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2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철해동지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3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34

조국소식

6.1국제아동절 73돐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38
전국의 소년단원들 조선소년단창립 77돐을 뜻깊게 경축 42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48
전야마다 펼쳐진 흐뭇한 밀, 보리작황 52
살림집건설장들에 더 많은 건재를 56
새로운 고려약과 건강식품들을 연구개발한다 62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경루국수집 64
수도의 거리에 새겨가는 애국의 자욱 68
8남매를 키우는 행복 72

인물소개

조선영화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녀성명배우 76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를 개발한 과학자 78

조선의 명승

신평금강의 여름 82

해외동포소식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 진행 88

슬기로운 우리 민족

력사유물 평양종 94

분노의 웨침

《민생, 민주, 평화파괴의 주범 윤석열은 퇴진하라!》 90

■ 표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자들

■ 뒤표지: 초산땅에 펼쳐진 새집들이풍경

■ 편 집: 리대성, 정철성

특 집

후대들의 행복,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김 정 은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인일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

주체103(2014)년 2월 3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시 모란봉구역 인흥동에 자리잡고있던 평양애육원을 찾아주시였다.

2층 유희실에 들어서시여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육원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애육원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새로 일떠세워주겠다고 하시였다.

그 말씀에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깜짝 놀랐다. 애육원이 이곳에 옮겨온지 근 10년동안 지금과 같이 꾸려진것만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들이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생활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비롯한 모든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새 애육원이 일떠서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구현된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

어린이들의 얼굴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 나라의 곳곳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행복의 요람, 세상에 다시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태양의 따뜻한 축복 속에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

우리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인일화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나서 문득 화제를 돌리시여 자신께서 보고받은데 의하면 지금 공장에서 만든 어느한 제품에서 물냄새도 나고 비린내도 나서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다고 자못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제품을 개별포장하여 아이들이 쭉쭉 빨아먹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제품견본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는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맛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입만큼 예민한것은 없습니다.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압니다.》

참으로 의미깊은 이 말씀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만을 먹이려 마음쓰시는 자애롭고 다심하신 친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공장이 아이들을 무럭무럭 자래우는데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가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우리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일터에서 생산을 다그치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종업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인일화

이른새벽에 거듭 걸어오신 전화

주체110(2021)년 9월 15일이였다.

이날 이른새벽 한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다정한 음성으로 그의 건강에 대해 물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금 평양시에서 시험생산한 젖가루를 풀어 맛보았는데 우유의 고유한 맛과 색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질적측면에서의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였다.

순간 그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 새벽에 시제품젖가루를 몸소 맛보시다니?!)

밀물처럼 차오르는 격정에 그는 눈앞이 흐려졌다.

송수화기를 정중히 놓는 일군의 귀전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모든 일군들이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음성이 뜨겁게 메아리쳐왔다.

그가 자신의 사업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있을 때 다시금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오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젖가루를 풀어본 상태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젖가루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화를 놓으신 후 시계를 바라본 그는 목이 꽉 메였다.

시계바늘은 4시 20분을 가리키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여섯째 의정으로 토의되였다.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기라고,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시며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까지 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어버이의 은정이 어린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키가 부쩍부쩍 크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쉬이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다.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인일화

건설현장에서 새겨주신 진리

주체102(2013)년 7월 어느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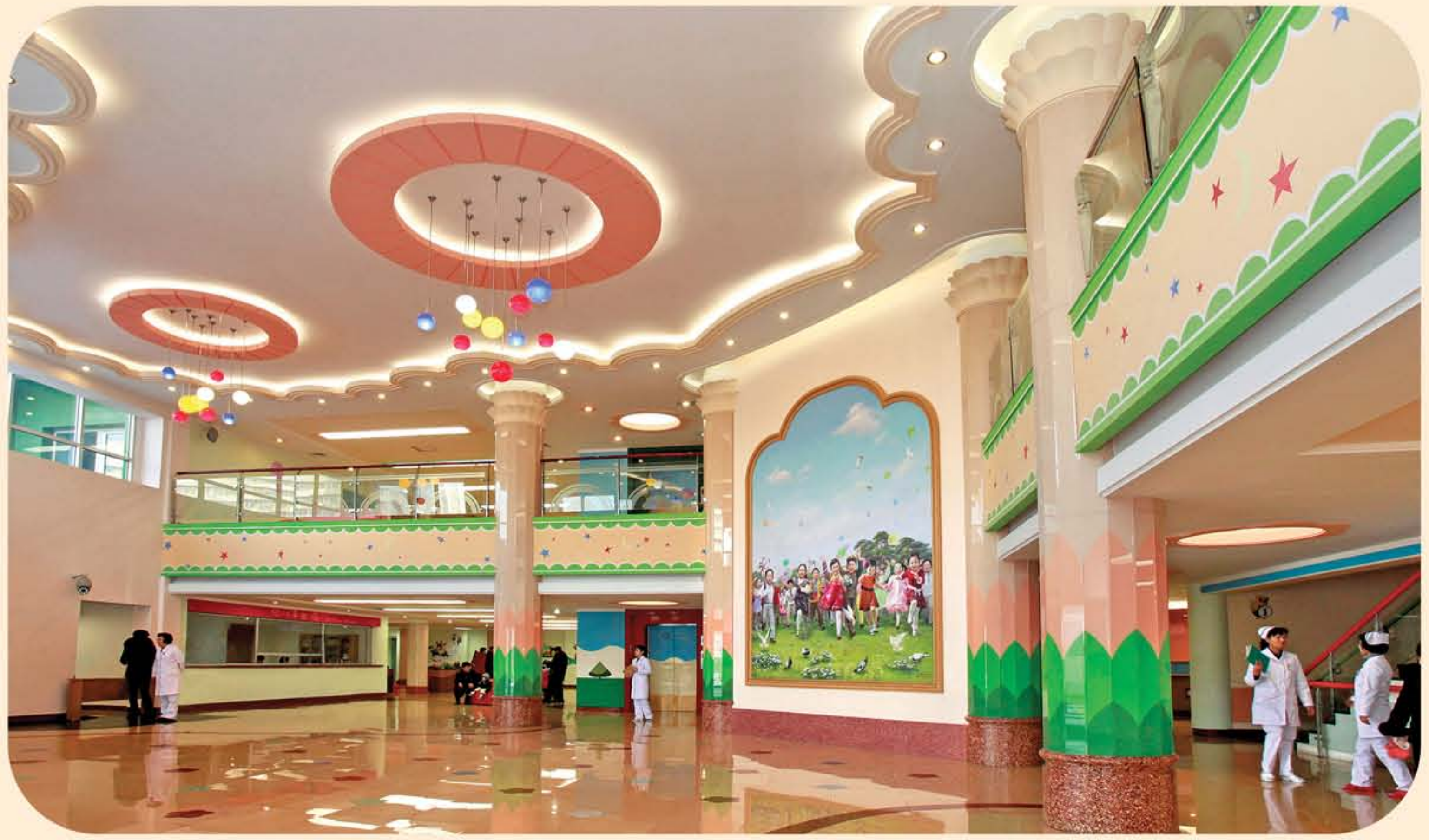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설비명세를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우산으로 그 문건을 가리우시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설비들에 대해 일군들에게 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시다가 보라고, 아동병원에 놓을 의료설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건을 보니 많은 의료설비를 놓을것으로 예견하였는데 그 설비들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것을 보면 의료설비와 관련하여서는 똑바른 주인이 없는것같다고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동병원을 현대적인 병원으로 꾸리자면 의료설비들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과 아동병원 일군들, 설계일군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건설물의 설계와 시공에만 신경을 쓰면서 의료설비문제는 전문분야의 일군들의 몫으로 여기던 설계부문의 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신들이 놓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였다.

이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에게 무슨 사업에서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한뜻으로 지혜를 합쳐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 때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응당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위인일화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할만한 기념비적창조물

주체103(2014)년 2월 23일이였다.

아직도 한겨울의 추위가 가셔지지 않은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장을 찾으시였다.

국제친선소년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멋있다는 소박한 표현속에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담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야영소소장에게 마음에 드는가고 물으시였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원수님께서 멋있게 지어주신 야영소에서 멋있게 일해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멋있게 일하겠다는 그 말이 정말 멋있다고 해학적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모두가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으나 소장은 웃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결의를 반드시 실천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는 자각이 심장속깊이 무겁게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였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송도원의 솔숲너머 저 멀리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할만한 기념비적창조물입니다. 우리 나라에 자랑할만한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완공된 야영소를 눈앞에 그려보시며 그처럼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사랑의 그 품속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보다 더 행복한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졌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는 야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수족관, 조류사, 동물박제품진렬실 등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인일화

구급의료실이 생겨난 사연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훌륭하게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여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영관에 이르시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이 리용하는 수영관에서나 볼수 있다고 하는 설비들로 갖추어진 수영관을 기쁨에 넘친 시선으로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궁전일군에게 이렇게 물으시였다.

《수영관에 구급의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물으심에 어린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1층에 진료소가 있다고 보고올리였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며 수영관에 구급의료실을 꾸리는것은 상식이라고, 그렇게 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소까지 업고가게 할것이 아니라 구급의료실에서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며 구급의료실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다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상할세라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수영관에 구급의료실을 꾸려놓는 문제에까지 세심히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웅장화려하게 전변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재능의 싹을 활짝 꽃피우고있는 학생소년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인일화

제일 중시하신 문제

주체107(2018)년 7월 16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가방생산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해 청진가방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생산현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진렬실에서 일군들에게 가방을 잘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가방공장을 훌륭하게 건설해주어 거기에서 우리 식의 가방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 자신께서는 철을 뽑는것도 중시하지만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습장, 교복과 가방을 잘 만들어주는것을 더 중시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였다.

《교과서와 학습장, 교복과 가방은 다 학생들의 필수용품입니다. 학생들에게 그것을 다 갖추어주어야 하지만 그가운데서도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제일 중시하고있는것이 바로 가방과 교복입니다.》

나라에 절실히 요구되는 강재보다도 학생들에게 가방을 잘 만들어주는것을 더 중시하신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일군들은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아버지원수님의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새 교복에 멋진 책가방을 메고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이 나라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밝은 미래를 안고 사는 복동이들인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학생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인일화

두번이나 미루어진 졸업식

주체111(2022)년 8월 어느날이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창립 75돐을 앞두고 여느때없이 들끓었지만 창립일전에 졸업식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졸업반학생들은 기념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아쉬움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졸업반학생들이 창립일전에 졸업하게 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졸업식을 미루더라도 그들을 기념행사에 참가시킬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10월 12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온 나라의 축복속에 성대히 거행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는 졸업반학생들도 참가하게 되였으며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행운도 받아안게 되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크고 따사로운 사랑을 받아안게 될줄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10월 1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며칠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여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주시였다.

그날 만경대혁명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졸업반학생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허나 그때까지도 혁명학원 학생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심하고 웅심깊은것인지 누구도 헤아릴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학생들이 인차 졸업한다고 하는데 사진을 빨리 뽑아 그들에게 안겨줄데 대해서와 학원에 인차 명기소를 보내주겠으니 꼭 소고기를 먹이고 방학을 보내며 졸업도 시킬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그렇게 되여 학생들의 졸업식은 또다시 미루어지게 되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을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두시고 온 세상이 부러웁도록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복받은 삶을 누리며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학생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온 나라 아들딸들 품에 안고서
날마다 더 큰 행복 안겨주셔요
행복하여라 부럼없어라
우릴 제일 사랑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 노래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중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철해동지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철해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5월 19일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다운 혁명가적품성과 고결한 인간미를 지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그마한 가식이나 사심도 없이 헌신한 혁명전사의 진실하고 결곡한 모습과 값높은 생을 회억하시며 현철해동지의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들이며 주체혁명이 낳은 특출한 충신원로인 현철해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는 전사, 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로혁명가의 공적은 우리 당과 국가의 력사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며 현철해동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애국렬사릉의 추모비앞에서 조국청사에 수놓아진 렬사들의 고귀한 삶이 후세토록 존경과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전진목표와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국가의 리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올해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년도의 진군로정에서 반드시 대책하고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올해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2.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
3.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4. 인민주권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5. 당규률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에 대하여
6.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의속에 우리 혁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문제들이 구체성, 전문성, 혁신성을 띠고 진지하게 토의결정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들이 **김정은**원수님을 수위로 하는 당중앙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에 의하여 빛나게 달성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사업을 마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의 숭고한 리념과 성스러운 위업이 성공과 승리의 높은 단상에 하루빨리 오를수 있게 백배의 자신심을 가다듬고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전면적부흥발전을 보다 용의주도하게 추진해나가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중대한 사명을 다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의 결정서

첫 째 의정: 2023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둘 째 의정: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고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넷 째 의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방법을 개선하여 인민주권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다섯째 의정: 당위원회 규률조사부기구를 확대개편하고 사업체계, 지도체계를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12(2023)년 6월 18일

통일화보

6.1국제아동절 73돐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6.1국제아동절 73돐기념 친선련환모임이 6월 1일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안의 유치원어린이들, 교양원들, 녀성들 그리고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 대표부성원들, 녀성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아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6월의 하늘가에 아동가요들의 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어린이들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자기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춤동작과 민속놀이들에 담아 펼쳐보이였다.

이어 체육유희오락경기가 있었다.

경기들에 출전한 꼬마선수들이 승벽을 부리는 귀여운 모습은 관중들에게 명절의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벌리는 재미있는 유희오락경기들에 여러 나라 외국손님들도 한데 어울려 련환모임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경기가 끝난 후 어린이들은 원무를 펼치고 유희시설도 리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한편 이날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도 국제아동절에 즈음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글 본사기자

중구역

전국의 소년단원들 조선소년단창립 77돐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참가자들이 6월 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참가자들은 이 땅우에 후대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 민족만대의 번영이 굳건히 담보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태양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한평생 우리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아끼시며 온갖 정을 기울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소년혁명가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로, 공산주의후비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 진행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이 6월 5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갈채속에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정중히 전달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편지이어달리기과정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하였다고 하면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삼가 충성의 편지를 올리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끝없는 기쁨과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줄 아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가 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소년단의 대부대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조선소년단창립 77돐을 맞으며
《소년》호방사포 증정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참되게 걷고있는 전국의 학생소년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7돐을 맞으며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군대에 보내줄 《소년》호방사포들을 마련하였다.

《소년》호방사포 증정모임이 6월 6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앞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증정사를 하였다.

《소년》호방사포 증정서가 조선인민군 군관에게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증정모임이 끝난 다음 학생소년들의 열렬한 바래움속에 《소년》호방사포들이 인민군부대들을 향해 출발하였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가 6월 25일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안의 12만여명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모여온 집회장소들에는 청소한 우리 국가를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장장 70여년간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만을 덧쌓아온 미제국주의에 대한 서리발치는 증오와 보복의지가 차고넘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지금 이 시각도 반공화국압살의 개꿈을 버리지 못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일삼고있는 미제와 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멸적의 구호로 터치며 행진해나아갔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는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한 혁명신념과 억센 투지로 노도와 같이 진군하여 영웅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갈 우리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각 도들에서도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글 본사기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가 각 도들에서도 진행되였다

조국소식

전야마다 펼쳐진 흐뭇한 밀, 보리작황

각지의 농업근로자들이 올곡식생산계획을 수행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 비상한 각오를 안고 년초부터 앞그루 밀, 보리농사에 성실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밀, 보리씨뿌리기면적을 철저히 보장하고 관개시설을 적극 리용하여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벌리였으며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였다.

하여 사회주의전야마다에 흐뭇한 밀, 보리작황이 펼쳐졌다.

지금 각지의 농촌들에서 알알이 여문 밀, 보리가을을 와닥닥 끝낼수 있는 준비사업들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수확적기를 바로 정하는 한편 수확기, 탈곡기, 뜨락또르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준비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한편 평양시의 농촌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이 적기가 되는 차제로 품들여 가꾼 올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밀, 보리가을에 진입하여 불이 번쩍나게 수확을 다그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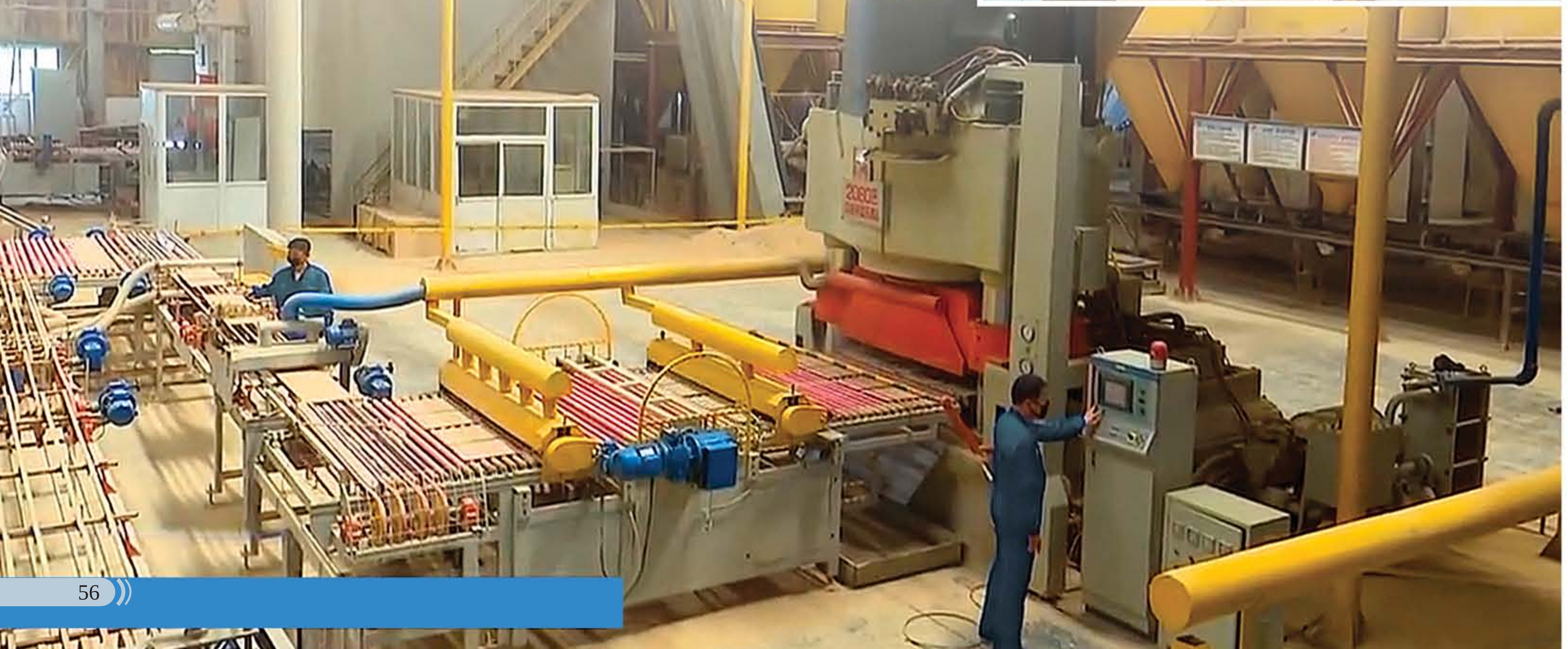
글 본사기자

살림집건설장들에 더 많은 건재를

— 천리마타일공장, 천리마건재종합공장, 평천부재공장 —

천리마타일공장의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보내줄 건재품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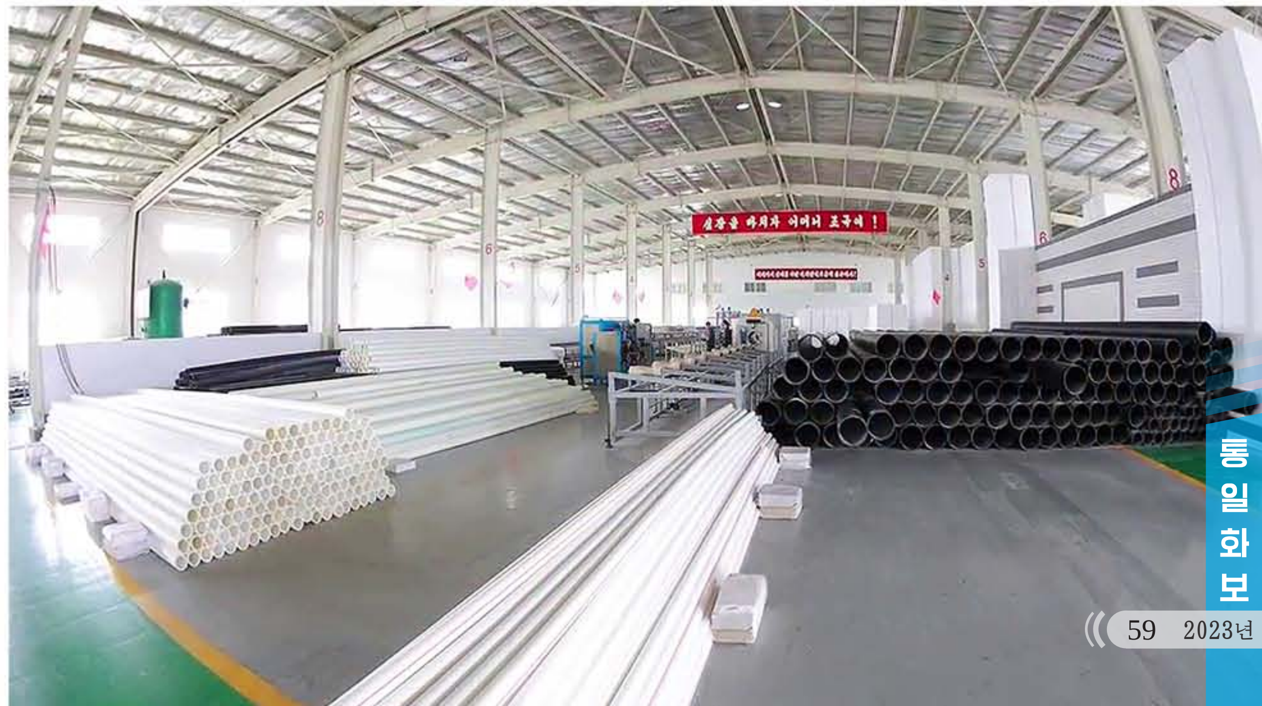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에 이어 두번째 해인 지난해에도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넘어섬으로써 주체적인 타일공업의 자랑찬 력사를 빛내인 이들은 얼마전 혁신적인 목표를 내걸고 한개 계렬의 타일생산흐름선을 불과 한달동안에 꾸려놓음으로써 생산능력을 단번에 1.2배이상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천리마건재종합공장에서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과학기술을 앞세운다면 얼마든지 국산화를 할수 있다는 자신심에 넘쳐있는 공장의 기술자들과 종업원들.

최근에만도 이 공장의 건재기술연구소 수지건재연구실의 기술자들은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새 제품개발과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천부재공장에서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들에 보내줄 조립식부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생산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기술적파악에 기초하여 조립, 타입, 양생, 출하공정들에서 호상간 협동과 맞물림을 강화하고 립체전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자기들이 생산한 경화촉진제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부재생산시간을 절반이상 단축하였다.

새로운 고려약과 건강식품들을 연구개발한다

— 조선고려약기술사 —

전국의 고려약공장들에서의 고려약제제의 과학화와 약물형태를 개선하고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조선고려약기술사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조직되였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봉화동에 자리잡고있는 이곳에서는 지난 시기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수십종의 고려약들과 건강식품들을 연구개발하고 각지 고려약공장들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혈압하강음료인 두충메밀음료와 얼룩엉겅퀴간염단알약을 비롯한 여러종의 고려약을 개발하고 카제인피막제를 콩단백피막제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약초절단기, 알약기 등 10여종의 생산설비들과 공정설계를 완성하여 고려약공장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였다.

지금 기술사에서는 고려약의 품질관리를 과학화하고 약품자원연구와 생산공정들을 더욱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진 장창묵, 글 문금철

조선고려약기술사에서 연구개발한 효능높은 고려약들의 일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경루국수집

― 중구역종합식당 경루국수집 ―

경루동에 자리잡고 있는 이 국수집에서는 평양랭면, 회국수와 함께 여러가지 특색있고 맛좋은 료리들을 봉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해 개업한 경루국수집은 수용능력이 수십명에 불과한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다.

하지만 이 국수집으로는 하루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있다.

조선사람이라면 남녀로소 누구나 좋아하는 평양랭면을 비롯한 맛좋고 영양가높은 민족음식들을 잘 만들어 봉사하기때문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우리 민족의 오랜 평양랭면제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메밀국수의 고유한 맛과 냄새, 색갈이 그대로 살아나고 영양학적, 약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비법들을 연구하여 료리제조에 리용함으로써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평양랭면과 회국수와 같은 여러가지 민족음식들과 함께 특색있는 료리들도 성의껏 봉사하고있어 경루국수집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수도의 거리에 새겨가는 애국의 자욱

— 중구역도로시설관리소 가로1작업반 도로관리원들 —

수십년을 도로관리원으로 일해오는 녀성들이다.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휴식일과 명절날도 가림없이 수도의 거리에 량심의 자욱을 새겨가는 녀성도로관리원들.

이들도 남편과 자식을 둔 한가정의 안해이고 어머니들이다.

하지만 남들이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도로관리원을 스스로 맡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이 길에서 보람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 이들속에는 지난해 경루동의 희한한 보금자리를 안겨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이 길에 나선 녀성들도 있다.

얼굴모습은 서로 달라도 가슴속에 간직된 소중한것은 한결같으니 그것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깨끗한 량심을 바치려는 애국의 마음이다.

사진 장창욱, 글 장윤정

이른새벽 거리에 나선 도로관리원들

나는 34년간 이 거리에서 도로관리원으로 일해오고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한적도 있었다. 하지만 수도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이 거리는 다름아닌 주인이 돌봐야 한다는 자각이 나를 이 길에 남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류다른 경루동의 거리, 이 길을 지켜가는 도로관리원으로서의 긍지는 남다르다.

- 중구역도로시설관리소 가로1작업반 오성옥 -

소형다기능청소차가 거리를 누비고있다.

새로 받은 설비를 언제나 알뜰히 관리하고있는 도로관리원들

길손들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는 도로관리원들

도로관리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가로1작업반원들

8남매를 키우는 행복

— 락랑구역 통일거리2동 37인민반 김성철, 김춘영가정 —

공화국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했는데 한둘도 아닌 여러 자식을 어떻게 키워가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통일거리의 어느한 가정에서 찾았다.

기자: 어떻게 많은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게 되였는가?

김춘영: 나의 시어머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들에게 부모를 다 잃었지만 공화국의 품에서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자랐다.

조국을 지키는 길에 가정의 행복도, 미래도 있다는 시어머니의 당부는 제가 아들딸을 많이 낳아 조국보위초소에 세울 결심을 품게 한 계기가 되였다.

기자: 몇명의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는가?

김춘영: 세 딸자식이 군복을 입고 군사복무를 하고있다. 그중 셋째딸은 지난 5월에 대학입학통지서를 받고도 조국보위초소로 탄원하였다.

기자: 8명의 자식을 키우자니 어려울 때도 있겠는데…

김성철: 제 처가 다섯째를 낳았을 때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나라에서는 우리 부부를 높이 내세워주고 극진히 돌봐주고있으며 이웃들도 친혈육의 정을 안고 자주 찾아오고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대표로 참가한 김춘영녀성(두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두번째)

김성철, 김춘영부부가 8남매와 함께 찍은 사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자식들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재능의 싹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이웃들도 친혈육의 정을 안고 8남매가정을 자주 찾군 한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넘치는 행복한 8남매가정

조선영화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녀성명배우

— 전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김일성상계관인 인민배우 오미란 —

오미란배우가 조선영화계의 아름다운 《별》로 불리우게 된것은 그의 독특한 개성과 참신한 연기형상에 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영화배우를 하기 위해 세상에 태여났다고 말할 정도로 그 어떤 역도 훌륭히 형상해내는 만능배우였다고.

1954년 8월 평양시 중구역 오탄동에서 태여난 그는 국립연극단배우양성소를 졸업하고 당시 2.8예술영화촬영소 배우가 되였다.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은 예술영화 《축포가 오른다》이다.

이후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명배우로 성장하여 예술영화 《새 정권의 탄생》, 《종군기자의 수기》, 《도라지꽃》 그리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비롯한 수십편의 영화들에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다.

연기를 잘한다고 과분한 치하도 해주시고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신 절세위인의 그 은정이 있어 그는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예술영화 《이어가는 참된 삶》을 창작하는데 온 정력을 다 바칠수 있었다.

영화예술로 조국을 빛내이는데 기여한 오미란배우는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다.

글 윤금철

오미란배우가 수여받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명예칭호증서

예술영화 《도라지꽃》 창조의 나날에…

아버지(오향문)로부터 화술지도를 받고있는 배우 오미란

배우 오미란이 출연한 예술영화의 일부 장면들

전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오미란은 20여년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차홍기편, 홍영자편)과 예술영화 《생의 흔적》을 비롯한 50여편의 영화들에서 역형상을 진실하면서도 참신하게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를 개발한 과학자

—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유기화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부교수 백학룡 —

백학룡선생은 20여년간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증산1》호)를 개발하였으며 이어 《증산2》호 연구에서도 성공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였다.

백학룡선생이 집필한 도서들의 일부

김일성종합대학의 백학룡연구사는 농사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를 개발한 실력있는 과학자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가 된 그는 련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겹쌓이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완성단계에 있던 론문집필을 뒤로 미루고 농사에서 높은 효률을 낼수 있는 연구과제를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그는 20여년세월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고심어린 탐구를 중단없이 진행하여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 《증산1》호를 개발하였으며 이어 《증산2》호 연구에 달라붙어 끝내 성공함으로써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였다.

이 나날 그는 수십건의 가치있는 학술론문들을 발표하여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도 이바지하였으며 3명의 박사와 10여명의 석사들을 키워냈다.

올해 나이가 56살인 백학룡선생은 보다 활성이 높고 작용특성이 좋은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여 나라의 쌀독을 그득히 채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칠 일념으로 과학탐구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장윤정

새로운 농약연구개발을 위한 합성실험을 하고있는 백학룡선생

인재육성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는 백학룡선생

⇦⇧ 백학룡선생은 자주 농장벌에 나가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백학룡선생이 연구개발한 식물성장촉진제 《증산2》호

조선의 명승

신평금강의 여름

신평금강은 우리 나라 중부지대로 뻗어내린 아호비령산줄기에 자리잡고있다.

명승지들은 어느것이나 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것처럼 신평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운은 계곡경치이다.

신평금강은 좁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채로운 풍경속에 청신함과 황홀함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명승지들과 구별된다.

특히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맑은 물이 협곡마다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윽한 정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드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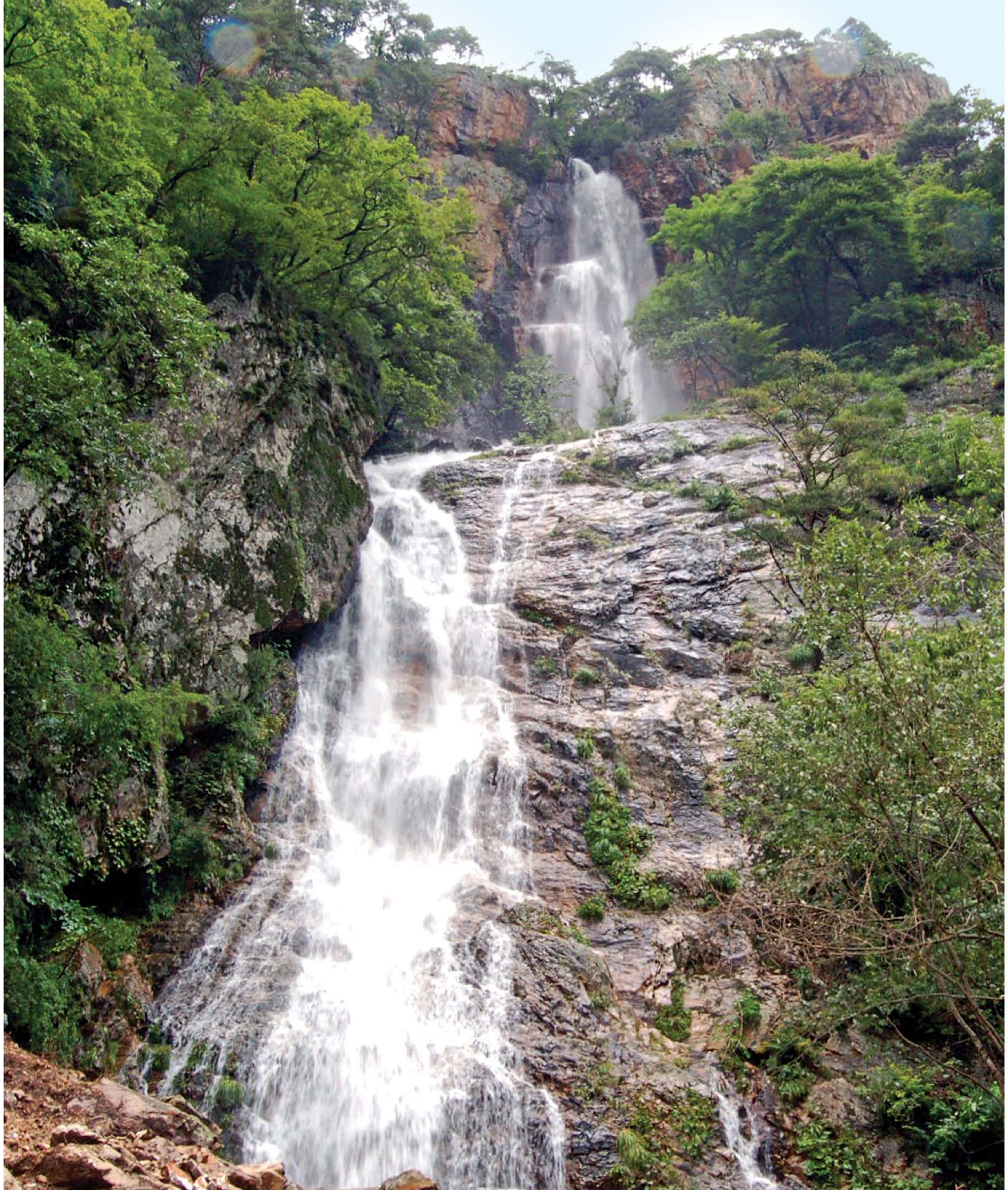
진주계곡과 금강계곡, 장수봉계곡, 옥류동계곡 등 신평금강의 8대계곡에 펼쳐진 가지가지의 경치와 명소들, 각이한 크기와 모양의 폭포들과 담소들, 층층이 단을 이루며 절벽을 따라 형성된 수림은 계곡미의 절경을 더해주고있다.

예로부터 복숭아꽃속에 묻힌 아름다운 골이라는 의미에서 도화동이라 불리워온 이곳은 높고 험한 산지에 깊숙이 들어앉아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여있었다.

하나의 자연풍경을 보시고도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수수천년 묻혀있던 도화동은 신평금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태여나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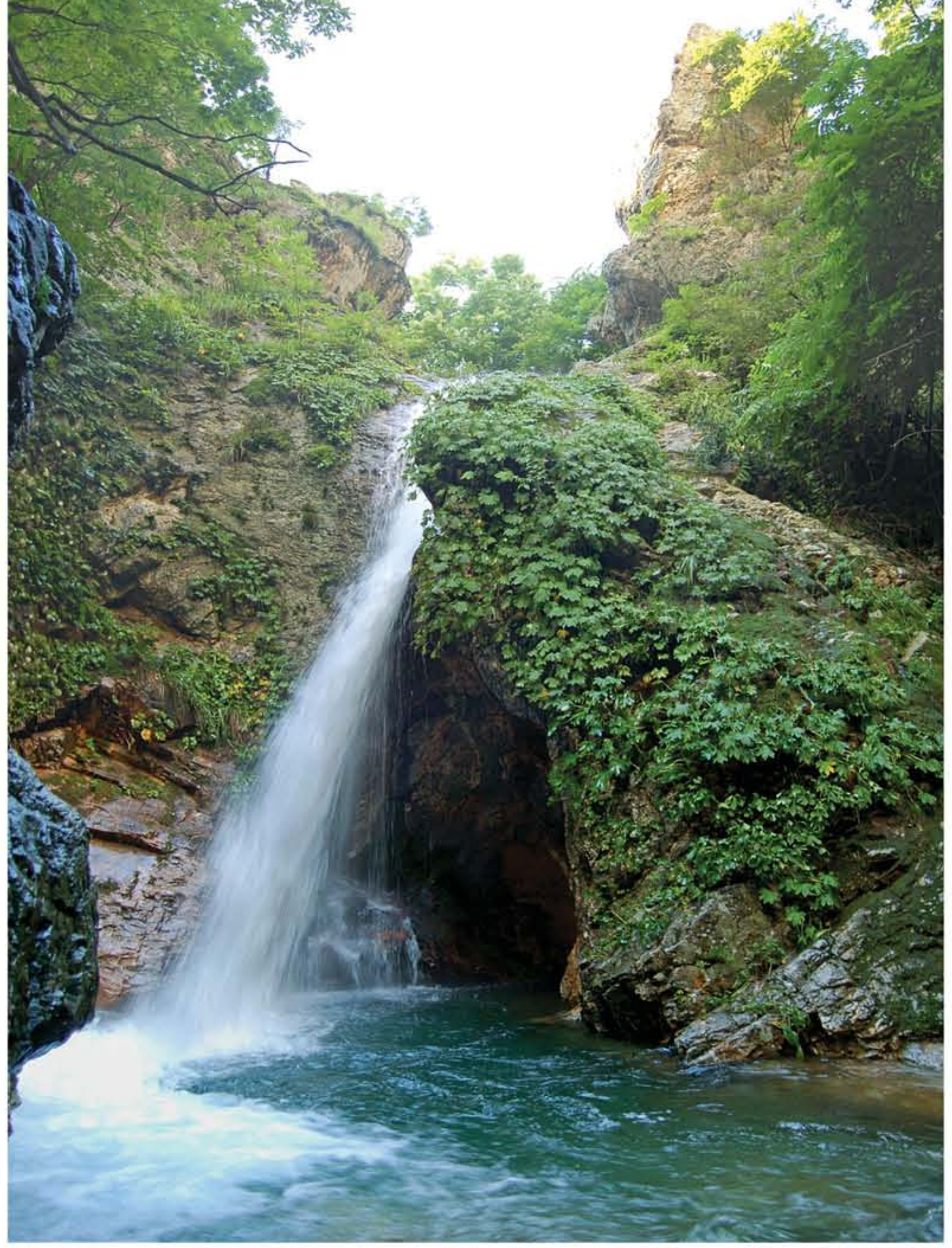
신평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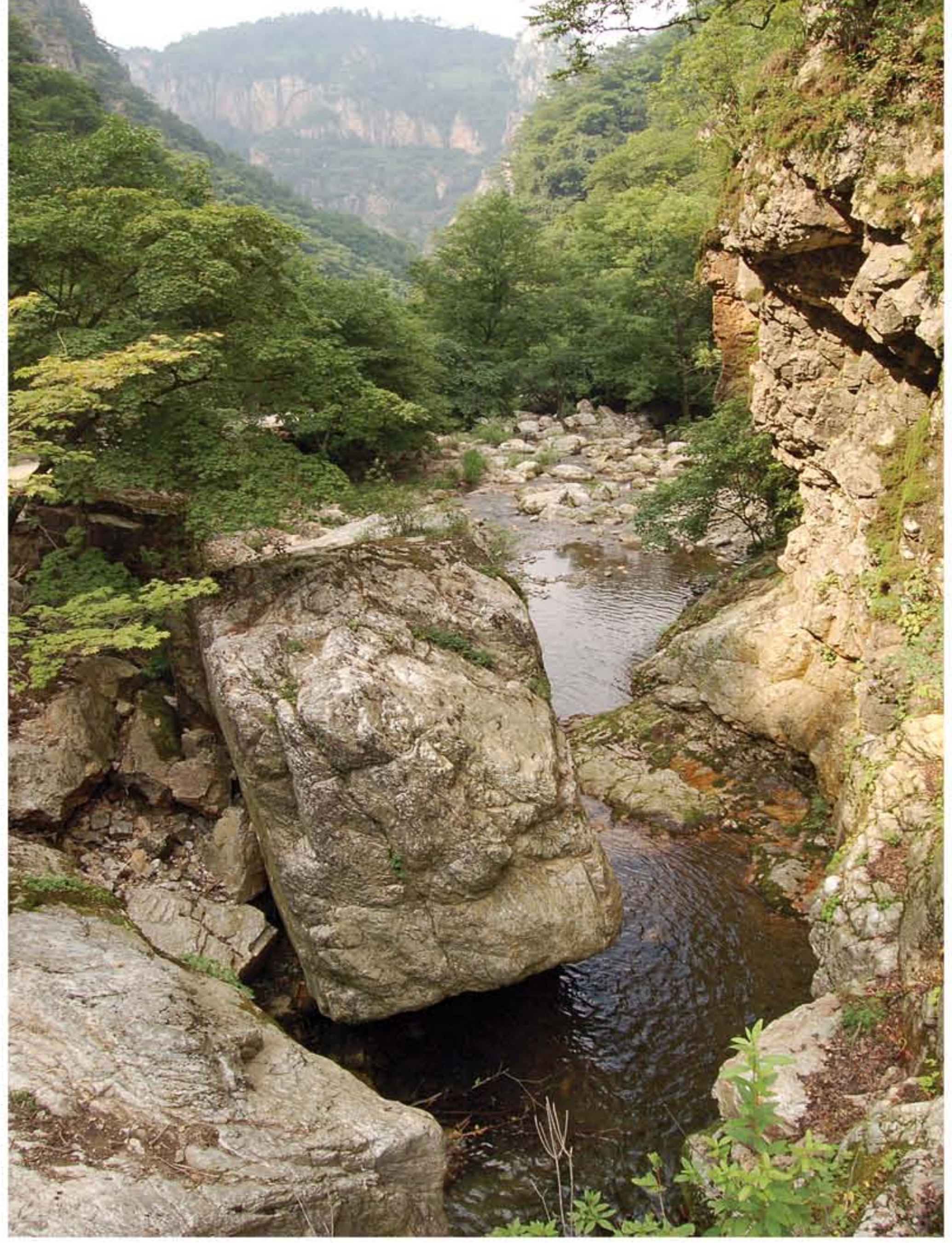

구룡폭포

봉화바위

도화동 명경대

신평금강


금강폭포


하마바위

신평금강의 무지개

거북바위와 파도바위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 진행

총련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오사까동포대축전이 오사까조선문화회관과 학교운동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사업실행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이 70돐 기념보고를 하였다.

이어 동포대축전이 진행되였다.

대축전장은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시며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돐 기념행사를 더욱 빛내여주시려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차고넘쳤다.

동포대축전에서는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의 각종 공연과 력대 교장 및 교육회 회장,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있는 졸업생들이 소개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글 본사기자

분노의 웨침

《민생, 민주, 평화파괴의 주범 윤석열은 퇴진하라!》

괴뢰지역에서 파쑈통치로 민중을 죽음에로 몰아넣는 윤석열역도를 기어이 심판하기 위한 각계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고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30여개의 시민단체가 《부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한데 이어 녀성단체들은 《녀성시국회의》를, 청년단체들은 《청년 초불행동》을 조직하고 역도퇴진투쟁에 들어갔다.

광주, 전남지역의 8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그리고 충청북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역적패당이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방류를 묵인한것은 국민을 죽이려는 파쑈적폭거라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괴뢰지역의 량대로총의 하나인 로동조합총련맹도 괴뢰역도가 로동자들의 생존권요구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였다고 하면서 로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에 진입할것이며 단결된 힘으로 싸우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글 본사기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한반도
전쟁 부르는
한미화력
격멸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핵참화 불러오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미·일의
윤석열
퇴진!

국민이 죽어 간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
대
로
못
살
겠
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력사유물

평양종

평양종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대동문과 련광정사이에 놓여있다.

1726년에 주조완성한 평양종은 우람하면서도 조화롭고 균형이 잘 잡혀있으며 종머리에 새긴 룡의 조각도 섬세하고 실감이 있어 우리 선조들의 주조기술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던 종들중의 하나인 평양종은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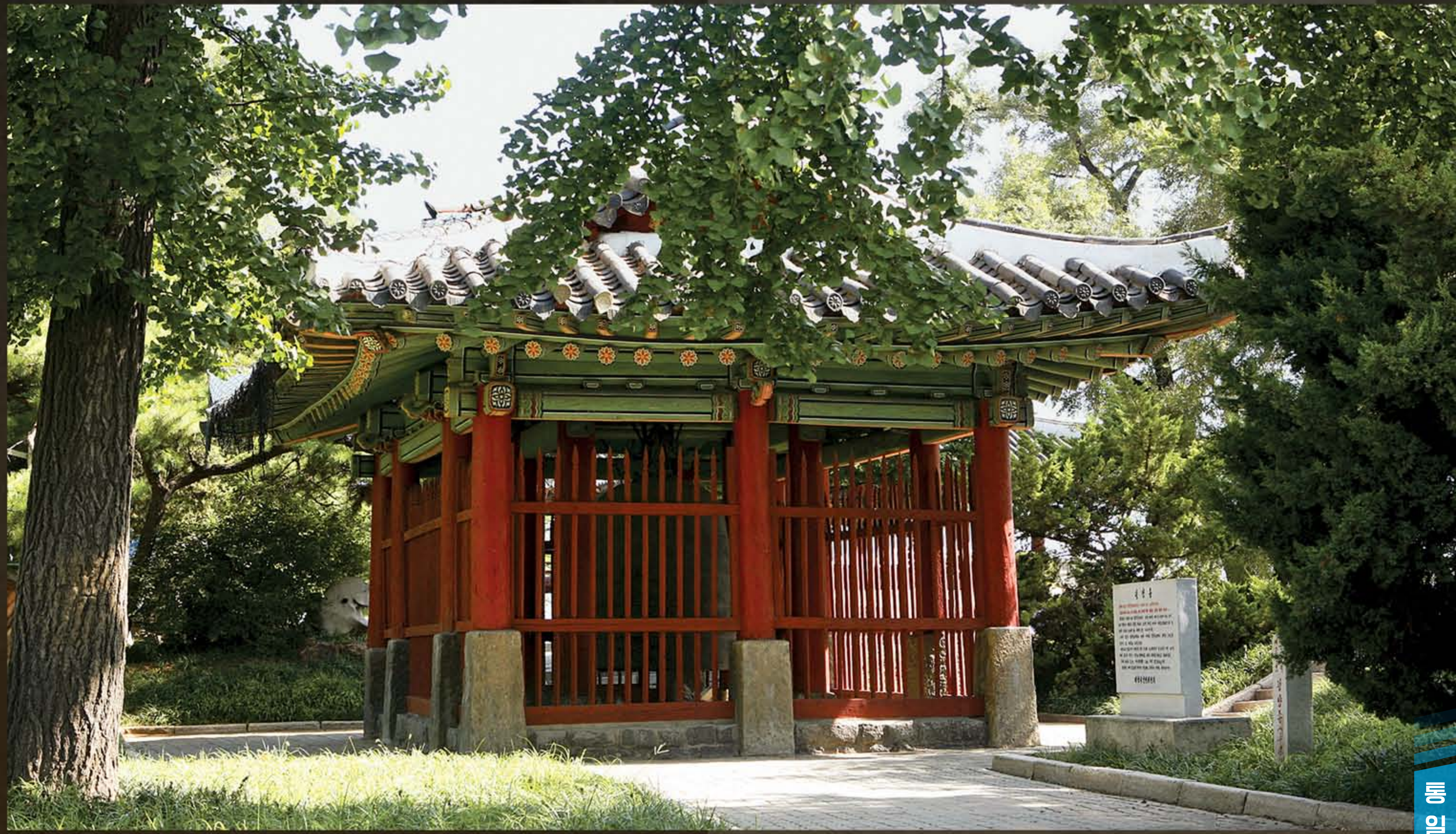
평양종은 평양인민들의 생활과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고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서 중요한 방위신호수단이였다.

우리 민족의 높은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평양종은 오늘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잘 보존되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장윤정

종머리에 틀어올린 청룡과 황룡의 조각은 섬세하면서도 기운차보인다.

평양종의 겉면에는 종의 래력 등이 새겨져있다.



평양종의 종각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605ㄷ

루계 416

ISSN2305 8544